



백두대간 종주 제7보

< 여름 휴식을 끝내고 >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8월 23~24일(무박) : 갈령 삼거리~속리산~늘재(20Km)

7월과 8월의 백두대간 산행 휴식(우리는 이를 방학이라 부른다)을 끝내고 다음 구간을 향하여 진행하려는 8월 23일 토요일 온통 기상대며 TV에서는 폭우경보에 폭우주의보를 시시각각으로 쏟아 내며 대간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한다.

집에서는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 데 대간 길을 꼭 가야 되겠냐고 하면서 온 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기에 대간 길은 산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백두대간 일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구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겨우 설득하여 집을 나오면서 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천왕이 뭉쳐서 가는 길에 폭우가 무엇이 문제냐며 중얼거리면서 동대문운동장 역을 향한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걱정하면서도 언제 비온다고 대간 가는 길을 중지하였나

고 자위해보면서 동대문운동장역 8번 출구앞에 도착하니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이 나를 반기고 곧 다문천왕이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다문천왕이 도착하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이구대장님을 만나러 고려관광버스에 올라 타니 반가운 얼굴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반긴다.

11시 10분경 쏟아지는 빗줄기를 뒤로하고 우리의 고려관광버스는 기수를 남쪽으로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다.

항상 그래 왔듯이 천안 휴게소에서 도착하였다는 이구 대장님의 목소리에 졸리운 눈을 비비고 밖을 나가니 '오잉' 여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네.

새벽까지 비가 오지 말기를 빌며 어둠을 뚫고 지난 5월 25일 접어 두었던 갈령 삼거리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안개만 자욱하다.

그래도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판초우의, 배낭덜게, 행동식 등을 준비하고 오전 3시 23분 어둠을 헤치고 대간 마루금을 꾸역 꾸역 오르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오르막이 시작되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칠팔월 휴식기간 동안 관악산을 돌아 다니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힘들어 하겠지 생각해 본다. 그래도 가야하는 길이기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 사람을 추월하여 고개마루를 열심히 올라 선두권을 추격하니 사천왕이 뽀뽀이 헤어지고 말았다. 아침 여명이 밝아오면 찾기로 하고 우선은 열심히 앞만 보고 걷다보니 형제봉도 피앗재도 확인도 못하고 여명을 맞이하고 말았다.

6시 15분, 산행시작 약 3시간 경과, 그래도 아직까지 비는 내릴 기색이 없다.

다행으로 생각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면서 사천왕이 다 모이기를 기다린다. 조금 넓은 전망바위에 앉아 발 아래 구름을 굽어 보면서 빵과 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속리산 천황봉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고 사천왕이 일렬로 움직인다.

7시 15분 천황봉에 도착하니 먼저 온 천안탐이 막걸리를 권하면서 천황봉 도착을박수쳐 주면서 방을 빼주어 우선 증명사진을 찍고 서둘러 음식을 호출하는 훌쩍해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아침 식단을 마련한다. 오랜만에 사천왕이 모여 맞이하는 아침 만찬이다. 이제 만찬 메뉴를 보자.

다문천왕이 가져온 초밥+양주+홍어무침. 광무천왕은 김밥+오이. 증장천왕은 전식에 맥주. 지국천왕은 치즈+김치+밥으로 이탄하면 2003년 하반기 대간 종주를 시작하는 아침 만찬으로는 최고급이다. 집에서 보다 먹거리가 더 많다.

오늘은 일식에 양주 먹고 음주 산행하게 되었다고 너스레를 떨어본다.

7시 40분 아침만찬을 정리하고 문장대휴게소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천황봉에서 바라보는 속리산의 절경을 구름이 방해하는 고로 다음에 천황봉을 다시 오마고 하면서 천왕석문, 비로봉을 지나 입경업장군이 수도시에 세웠다는 입석대 앞에서 바위를 이리 저리 기어 올라 사진을 찍고 신선대에 올라 서니 대피소 매점아저씨 여기서 신선주를 마시고 가야 신선이 된다고 꼬시는 바람에 빈대떡 한개+동동주 1독=만원으로 신선이 되어 문수봉을 지나 문장대휴게소에 도착하니 이구대장님이 사천왕을 반가이 맞아 주시며 여기서 요기를 하고 식수도 보충하라고 하시지만 신선대에서 신선이 되어 오는 바람에 문장대를 향하여 곧바로 직진. 오호 통제라 문장대에 올라 서 보아도 온통 사방이 안개 구름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집을 호출해보니 수도권은 온통 폭우로 난리가 났다고 도리어 비 한방울 맞지 않은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다. 충청도 지방 폭우주의보는 기상청의 예측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씩씩한 맛이든다. 어제 저녁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문장대에서 법주사에서 올라 오는 등반객에게 물어 보니 폭우주의보는 그래도 계속 발효되고 있다고 '방송'하였다니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

문장대에서 대간길을 접어드니 처음부터 바위 구

명이 심상치가 않다.

암릉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바위 틈새를 빠져나오니 7~8평 정도의 조망하기에 좋은 널찍한 바위가 나오고, 5분 정도 더 가니 바위 틈새로 2개의 밧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개구멍의 연속이다. 한팀은 첫 번째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우리팀은 첫 번째 내리막길을 우회하여 밑에서 올라오기로 하고 길을 개척하여 바위구멍을 간신히 빠져나오니 안개는 저 멀리 사라지고 속리산의 전경이 서서히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개구멍이 끝났나 생각하는 데 다시 배낭을 던져 놓고 개구멍을 빠져나온다. 바위 틈새에 걸쳐있는 나무줄기를 타고 지나가는 재미가 있는 구간이 끝나고 밤티재를 향하여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밤티재는 현재 개발중인 문장대 온천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화북면 중벌리 자연부락인 밤치(밤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밤티재를 벗어나 잠목사이를 부지런히 올라가 696.2m봉 못미처에 있는 넓직한 바위에서 구름속을 헤치고 나온 속리산의 여름 풍경을 감상하면서 남은 맥주, 오이, 소주 등을 펼쳐 놓고 마지막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저 멀리 입석대, 문장대 등을 가리키며 그래도 지금이나 안개가 걷히고 속리산 자락을 볼 수 있는 것을 다행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느긋한 기분으로 맥주 한잔과 소주 한잔으로 마지막 구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696봉을 꾸역 꾸역 올라 다시 한번 오늘 지나온 길을 더듬어 보고 완만한 능선길을 질주하여 350년생 음나무와 성황당, 그리고 주차공간이 있는 늘재(늘티재)에 도착하여 오늘의

구간산행을 마감한다.

늘재에서 좌측 도로를 따라 300m 정도 내려오니 우리를 서울로 태우고 갈 서울고려관광 버스가 보이고 이구 대장님이 준비한 점심 만찬이 우리를 기다린다.

속리산 깨끗한 계곡 물에 땀을 씻고 송어회, 매운탕에 오늘의 피로를 풀고 9월 둘째주를 기약하면서 버스내 자리를 차지하자 말자 잠속으로 빠져든다.

◎ 속리산은 워낙 유명한 산이라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군 화북면에 걸쳐 있는 속리산은 우리나라 대찰 가운데 하나인 법주사를 품고 있다.

정상인 천황봉(1,058m), 비로봉(1,032m), 문장대(1,033m), 관음봉(982m), 입석대 등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능선이 장쾌하다. 봉우리가 아홉 개 있는 산이라고 해서 신라시대 이전에는 구봉산이라고도 불렀다.

속리산은 산세가 수려하여 한국 8경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봄에는 산벚꽃,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가을엔 만상홍엽의 단풍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지고, 겨울의 설경은 마치 북향기 그윽한 한복의 동양화를 방불케 하는 등 4계절 경관이 모두 수려하다.

속리산은 법주사(사적 명승지4호), 문장대, 정2품 소나무(천연기념물 103호)로 대표된다. 법주사에는 팔상전, 쌍사자석등, 석연지의 국보와 사천왕석

등, 대웅전, 원통보전, 마애여래의상, 신법천문도병풍의 보물등 문화재가 많다.

문장대는 해발 1,033m 높으로 속리산의 한 봉우리이며, 문장대에 오르면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문장대는 바위가 하늘 높이 치솟아 흰구름과 맞닿은 듯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일명 운장대라고도 한다. 문장대 안내판에는 문장대를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속설을 전하고 있다.

정2품 소나무는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수령 600여년의 소나무로, 조선 세조 때, 임금님으로부터 정이품이란 벼슬을 하사 받았다고 한다. 이 소나무는 마치 우산을 펼친 듯한 우아한 자태가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세조대왕(1464년)이 법주사로 행차할 때 대왕이 탄 연이 이 소나무에 걸릴까 염려해 '연 걸린다'라고 소리치자 소나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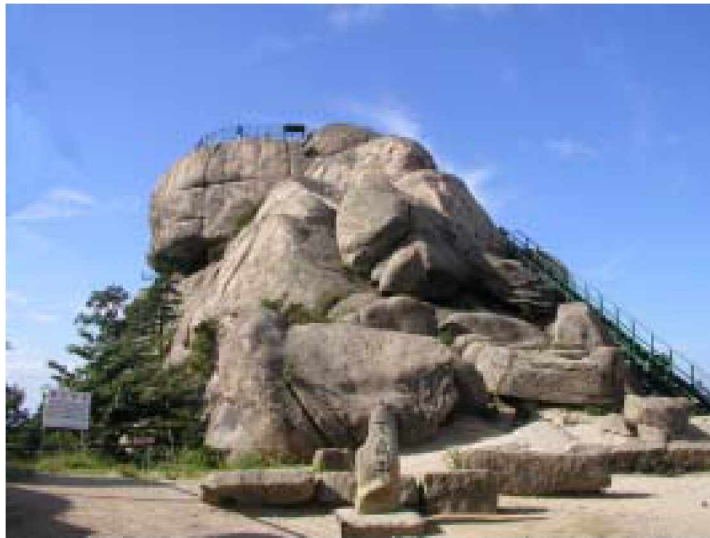
지가 번쩍 들려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연으로 '연걸이 나무'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대왕은 이 나무에 정2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속리산은 산행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산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아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곳 이어서인지 관광객들이 수시로 찾아든다.

법주사는 초·중고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인기있다. 속리산 단풍은 설악이나 내장산과 같이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다. 가을이면 수학여행은 학생들로 붐빈다.

1,033m 높이의 문장대에 오르면 속리산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신선대 휴게소에서 주변 풍광으로 청법대 바위의 웅장함에 감탄하게 된다.

신라 헌강왕 때 고운 최치원이 속리산에 와서 남긴 시가 유명하다.



<정면에서 바라본 문장대>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 사람은 도를 멀리 하고 /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으나 / 속세는 산을 떠나는구나” (도불달인 인달도 산비리속 속리산)

우암 송시열은 속리산 은폭동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양양하게 흐르는 것이 물인데 / 어찌하여 돌 속에서 울기만 하나 / 세상사람들이 때문에 발 씻을까 두려워 / 자취 감추고 소리만 내네” ♣